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신 민 진<sup>†</sup>

하 은 혜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인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580명이었다. 측정도구는 과보호척도, 소아청소년 불안척도(RCMAS), 역기능적 신념 단축판, 아동용자동적사고척도(K-CAT)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기능적 신념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자율성 저해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잉애정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인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원인론적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과보호가 보편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양육태도의 일부분으로만 연구되어진 과보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소년 불안의 관계뿐 아니라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주요어 : 과보호, 부정적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 신념, 불안

\* 본 연구는 신민진(2009)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sup> 교신저자 : 신민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40-742)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E-mail : coyouth@hanmail.net

불안은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기본정서로 미래의 위협이나 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생기는 반응이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잘못될 수 있는 일을 예견하여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적응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안이 과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미리 두려워하게 되어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과도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으로 일상의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는 것을 불안장애라 하는데, 불안장애는 소아청소년기에 흔한 장애로 유병율이 12-20%이다.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보이는 범불안장애는 만성적이고 과도하고 통제불가능한 걱정이나 근심이 특징적이며, 자신의 발달 수준에 비해서 더 많이 격리 불안을 보이는 분리불안장애, 사회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을 보이는 사회불안,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중에 하나인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등교거부 행동과 시험에 두려움을 느끼는 시험불안 등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Eric & David,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품행장애 등의 외현화장애는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빈번하게 야기하고, 타인을 방해하는 특성으로 인해 구조화된 학업활동이 시작되는 초기 학령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상담·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 쉽다. 그러나 지나치게 통제되고 위축된 행동이 특징인 불안장애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어 관심을 받기보다는 ‘소극적인 성격’ 정도로 인식되거나, 오히려 ‘말을 잘 듣고 얌전한’ 학생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어 좀 더 만성화 되고 그 정도가 심화된 후

에야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이르러 불안장애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증상의 정도도 심각해진다(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게다가 청소년기 불안장애는 친구가 적고,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며, 결석, 유급 등 적응상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많고(Rapee & Melville, 1997), 이는 성인기에도 심각한 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불안의 기원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문경주, 오경자, 2002). 양육태도의 한 차원인 과보호 요인은 특히 불안과 관련이 깊은데 Bögels과 van Melick(2004)는 불안과 관련된 양육태도를 자율성-과보호, 수용과 지지-비난과 거부 두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과보호차원이 아동의 불안 유지와 관련되며, 아버지의 자율성-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불안과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Adler(1958)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성격발달에 있어서 심리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으로써 자녀의 신경증과 정신병리 현상의 원인으로 보았고, Benedek(1970)은 과보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 과잉된 기대와 간섭을 갖게 함으로써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많은 양육방식으로 인식하였다. Nelsen과 Erwin(2000)은 과보호는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에는 없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과잉보호 요인이 아동·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특히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혜영, 2000; 문경주, 오경자, 2002; 염숙경, 이영미, 1999).

국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비교문화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미국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되는 반면(Rohner & Rohner, 1978), 한국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관심 및 돌봄과 관련된다 는 보고가 있다는 것이다(Kim & Choi, 1994; Rohner & Pettengil, 1985). 또한,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자율성의 제한 및 행동의 규제가 성인에게는 과보호 및 통제로 지각되는 반면, 청소년에게는 애정이나 신뢰의 결여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문경주, 오경자, 2002). 즉, 과잉개입과 과보호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과보호가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특성이나 정도에서 서구와의 차이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모델에 따르면, 부정적 인지의 영향으로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할 때 초기사건의 경험이 강조된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서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부모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이고, 온정성이 낮을 때 후기 정신병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ngram, Overbey & Fortier, 2001).

Vasey와 Dadds(2001)는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아동을 안전하게 만들기 보다는 예상 가능한 위험을 경계하고 스스로 취약하다고 믿게 만들어 위협에 대한 인지적 편견을 가지게 한다고 보았고,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해 수행된 부정적 인지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은 거부적이며 불안정한 양육행동을 경험하면 걱정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uris, Meesters, Merckelbach & Hulsenbeck,

2000).

Gallagher와 Cartwright-Hatton (2008)의 연구에서도 거칠고 체벌하는 비밀관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지왜곡발달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만약 부모가 과잉반응하며 자녀의 비행에 체벌적으로 반응한다면, 아동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 사건으로 초점화 하여 결과적으로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듯 상황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왜곡, 개인의 인지적 편견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Mathews & Mackintosh, 2000).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 통제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비합리적 신념 정도가 높았다(변영주, 1994; 이진용, 1988; 황애현, 2002).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이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신 건강 및 문제행동과 밀접히 연관되며 특히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인지요인과 관련되어 후기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문제를 유발하는 결정 요인으로 비현실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융통성 없는 역기능적 신념이 있다. 부적응행동을 유발하는 역기능적 신념은 일상생활에 편재해 있으면서 중요한 주변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학습되어 개인의 신념에 통합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기저에는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있으며,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자신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고, 그 결과 정서문제가 발생되기 쉽다(이정윤, 김유경, 2006).

불안과 인지요인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lass와 Furlong(1990)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본 결과, 전자가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지, 부정적 자기 진술 등의 역기능적 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 신념의 인지요인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이 각각 매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박은정, 하은혜, 2007; 박한아, 200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불안을 발현시키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서구 문화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관한 체계적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사용된 척도 중에는 과보호만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Parker(1979)가 제작한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인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하였으나, 질문들이 추상적이며 번안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한국 문화의 특유한 과보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은영(2008)이 과보호와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였고, 실제 청소년에게 어머니에 대한 과보호 양상을 질문하여 수집한 문항들을 토대로 과보호의 개

념정의가 서구문화와 다른 한국 사회현상과 문화를 반영한 과보호 척도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은영(2008)이 과보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작한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하위요인에 따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인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불안 취약요인 및 청소년기 불안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힘으로써, 청소년 불안에서 개입과 예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4곳의 중학교 1-3학년 대상으로 배부한 설문지 630부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경우를 제외한 60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가운데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5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남자241명(41.6%), 여자 339(58.4%)이었다.

### 측정도구

#### 과보호 척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 정은영(200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보호를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개념으로 구성하여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과잉기대 5문항(부모의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 자율성 저해 5문항(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과잉통제 5문항(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과잉보호 및 불안 5문항(유아 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봐줌), 과잉애정 5문항(지나친 접촉과 허용, 부모자녀 일체감 내포)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5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 .64 \sim .90$ 이었다.

**소아 청소년 불안 척도(Rer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청소년 불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Reynold와 Richmond(1978)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적인 특성으로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평가도구를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역,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7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로 답할 수 있으며, 28개 문항은 불안척도, 나머지 9개 문항은 허구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허구척도를 제외한 28 문항을 사용하였다.

**역기능적 신념 단축판 (Short version of the Dysfunctional Beliefs Test)**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취약성 변인으로 알려진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총 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홍세희, 조용래

(2006)가 36개 문항으로 단축한 자기보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피검자가 각 문항이 본인의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정도나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점: 아주 일치{동의}하지 않는다, 6점: 아주 일치{동의}한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36-216점이다.

이 척도는 사회적 자아에 대한 부정적 개념 12문항,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12문항, 그리고 타인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 신념 12문항으로 구성된 총 3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주경(2007)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 .92, .85, .85$ 로 나타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영경(2008)의 연구에는  $.90, .87, .82$ 이었고, 전체 역기능적 신념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아동용 자동적 사고 척도(Korea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K-CATS)**

청소년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과 Rapee(2002)에 의해 개발된 아동기 자동적 사고척도를 문경주, 오경자 및 문혜신(2002)이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타당화 연구를 통해 32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우울인지 10문항(우울이나 개인적 실패 관련)', '사회불안 인지 10문항(사회적 위협 상황에 대한 불안감 관련)', '적대적 인지 6문항(보복심이나 적개심 관련)', '신체적 위협인지 6문항(신체적 위협 상황에 대한 불안감 관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상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며, 총점 및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 .77 \sim .94$ 이었다.

통계분석

첫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부정적 인지 및 청소년 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는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198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부정적 인지 및 청소년 불안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부정적 인지, 청소년 불안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총점, 하위요인인 과잉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과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30, r=.23, r=.14, r=.28, r=.28, p<.01$ ). 그러나 과잉애정은 청소년 불안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8, ns$ ).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총점, 하위요인과 매개 변인인 역기능적 신념( $r=.31, r=.19, r=.21, r=.28, r=.30, p<.01$ )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r=.21, r=.14, r=.19, r=.24, p<.01$ )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표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N=580)

변인	1	2	3	4	5	6	7	8	9
1. 과보호 총점	1								
2. 과잉기대	.68**	1							
3. 자율성 저해	.61**	.28**	1						
4. 과잉통제	.79**	.45**	.38**	1					
5. 과잉보호 및 불안	.83**	.40**	.47**	.61**	1				
6. 과잉애정	.58**	.11**	.28**	.25**	.46**	1			
7. 불안	.30**	.23**	.14**	.28**	.28**	.08	1		
8. 역기능적 신념	.31**	.19**	.21**	.28**	.30**	.09*	.58**	1	
9. 부정적자동적 사고	.21**	.14**	.10*	.19**	.24**	.07	.68**	.65**	1

\*  $p<.05$ , \*\*  $p<.01$

리나 과잉애정은 역기능적 신념과는 낮은 상관관계( $r=.09, p<.05$ )를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07, ns$ ), 자율성 저해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10, p<.05$ ). 매개 변인인 역기능적 신념은 청소년 불안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58, p<.01$ ),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청소년 불안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68, p<.01$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 효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총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이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31, p<.001$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총점이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30, p<.0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신념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 $\beta=.54, p<.001$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30$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13$ ). 따라서 역기능적 신념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6.33, p<.001$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하위요인별로 청

표 2. 과보호 총점과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N=58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단계 과보호총점	역기능적신념	.82	.11	.31	7.72***	.09	59.58***
2단계 과보호총점	불안	.18	.02	.30	7.44***	.09	55.35***
3단계 과보호총점	불안	.08	.02	.13	3.72***	.35	154.85***
	역기능적신념	.12	.01	.54	15.24***		

\*\*\*  $p<.001$

표 3. 과보호의 하위요인과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N=58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단계							
과잉기대	역기능적신념	1.48	.32	.19	4.67***	.04	21.77***
2단계							
과잉기대	불안	.42	.07	.23	5.72***	.05	32.74***
3단계							
과잉기대	불안	.23	.06	.13	3.68***	.35	154.63***
역기능적신념		.13	.01	.55	16.18***		
1단계							
자율성저해	역기능적신념	3.16	.61	.21	5.18***	.04	26.85***
2단계							
자율성저해	불안	.47	.14	.14	3.32**	.02	11.00***
3단계							
자율성저해	불안	.05	.12	.02	.45	.33	144.60***
역기능적신념		.13	.01	.57	16.54***		
1단계							
과잉통제	역기능적신념	2.32	.33	.28	6.96***	.08	48.44***
2단계							
과잉통제	불안	.53	.08	.28	6.87***	.08	47.19***
3단계							
과잉통제	불안	.24	.07	.12	3.53***	.35	153.82***
역기능적신념		.13	.01	.54	15.52***		
1단계							
과잉보호 및 불안	역기능적신념	2.81	.37	.30	7.63***	.09	58.23***
2단계							
과잉보호 및 불안	불안	.60	.09	.28	7.07***	.08	49.92***
3단계							
과잉보호 및 불안	불안	.25	.08	.12	3.34**	.35	152.83***
역기능적신념		.13	.01	.54	15.35***		

\*\*  $p < .01$ , \*\*\*  $p < .001$



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잉기대가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19, p<.001$ ), 과잉기대가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23, p<.0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신념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55, p<.001$ ), 과잉기대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23$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13$ ). 따라서 역기능적 신념은 과잉기대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4.36, p<.001$ ).

자율성 저해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 단계에서 자율성 저해가 역기능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21, p<.001$ ), 자율성 저해가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4, p<.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신념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57, p<.001$ ), 자율성 저해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 $\beta=.02$ ), 역기능적 신념은 자율성 저해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4.81, p<.001$ ).

과잉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

에서 과잉통제가 역기능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28, p<.001$ ), 과잉통제가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28, p<.0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신념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54, p<.001$ ), 과잉통제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28$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12$ ). 따라서 역기능적 신념은 과잉통제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6.18, p<.001$ ).

과잉보호 및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과잉보호 및 불안이 역기능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30, p<.001$ ), 과잉보호 및 불안이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28, p<.0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신념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54, p<.001$ ), 과잉보호 및 불안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28$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12$ ). 따라서 역기능적 신념은 과잉보호 및 불안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6.56, p<.001$ ).

그러나 어머니의 과잉애정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 효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총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이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21, p<.001$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이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30, p<.0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65, p<.001$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30$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16$ ). 따라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총점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 =$

4.80,  $p<.001$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하위요인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잉기대가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14, p<.01$ ), 과잉기대가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23, p<.0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66, p<.001$ ), 과잉기대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23$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14$ ). 따라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과잉기대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 =$

3.29,  $p<.001$ ). 자율성 저해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

표 4. 과보호총점과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N=58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단계 과보호총점	부정적 자동적사고	.50	.01	.21	5.25***	.05	27.52***
2단계 과보호총점	불안	.18	.02	.30	7.44***	.09	55.35***
3단계 과보호총점	불안	.10	.02	.16	5.17***	.48	270.64***
부정적 자동적사고		.17	.01	.65	21.06***		

\*\*\*  $p<.001$

표 5. 과보호의 하위요인과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N=58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단계							
과잉기대	부정적자동적사고	.94	.28	.14	3.34**	.02	11.15**
2단계							
과잉기대	불안	.42	.07	.23	5.72***	.05	32.74***
3단계							
과잉기대	불안	.25	.05	.14	4.65***	.48	265.89***
부정적자동적사고		.17	.01	.66	21.75***		
1단계							
자율성저해	부정적자동적사고	1.32	.54	.10	2.42*	.01	5.85*
2단계							
자율성저해	불안	.47	.14	.14	3.32**	.02	11.00**
3단계							
자율성저해	불안	.24	.11	.07	2.27*	.47	250.66***
부정적자동적사고		.18	.01	.67	21.94***		
1단계							
과잉통제	부정적자동적사고	1.40	.30	.19	4.70***	.04	22.04***
2단계							
과잉통제	불안	.53	.08	.28	6.87***	.08	47.19***
3단계							
과잉통제	불안	.29	.06	.15	4.92***	.48	268.32***
부정적자동적사고		.17	.01	.65	21.27***		
1단계							
과잉보호 및 불안	부정적자동적사고	1.93	.33	.24	5.87***	.06	34.44***
2단계							
과잉보호 및 불안	불안	.60	.09	.28	7.07***	.08	49.92***
3단계							
과잉보호 및 불안	불안	.28	.07	.13	4.14***	.48	261.73***
부정적자동적사고		.17	.01	.65	20.88***		

\*  $p < .05$ , \*\*  $p < .01$ , \*\*\*  $p < .001$

단계에서 자율성 저해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10, p < .05$ ), 자율성 저해가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14, p < .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 = .67, p < .001$ ), 자율성 저해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 = .14$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 = .07$ ). 따라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자율성 저해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 = 2.42, p < .001$ ).

과잉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과잉통제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19, p < .001$ ), 과잉통제가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28, p < .0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 = .65, p < .001$ ), 과잉통제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 = .28$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 = .15$ ). 따라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과잉통제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 = 4.50, p < .001$ ).

과잉보호 및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과잉보호 및 불안이 부정적 자

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24, p < .001$ ), 과잉보호 및 불안이 종속변인인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28, p < .001$ ).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 = .65, p < .001$ ), 과잉보호 및 불안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 = .28$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 $\beta = .13$ ). 따라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과잉보호 및 불안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_{ab} = 5.53, p < .001$ ).

그러나 어머니의 과잉애정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하위요인에 따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지인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3학년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은 유의한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과보호가 증가할수록 청소년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을 취약하다고 믿게 만들어 의존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미리 두려워하게 되는 불안의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과보호하고 과통제 할 때 자녀의 불안, 우울 등의 내현화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김혜영, 2000; 염숙경, 이영미, 1999; 정은영, 2008)와 더불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부정적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비교문화연구에서 미국 청소년에게는 지각된 과보호가 부모의 적대감, 거부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한국청소년에게는 과보호가 관심과 돌봄 등 부정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Kim & Choi, 1994; Rohner & Pettengil, 1985; Rohner & Rohner, 1978)가 있었다. 우선, 본 연구결과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역기능적 속성 및 기능적 측면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역기능적 신념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신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잉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 자율성 저해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율성 저해가 청소년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역기능적 신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불안과 같이 내재화 장애에 해당하고, 불안과 많은 공존병리를 가지고 있는 우울장애의 설명모형을 빌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Beck(1983; 1987)은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기제를 구체화시킨 특수상호작용 모델(Specific Interaction Model)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두 가지 측면인 사회적 의존성(Sociotropy)과 자율성(Autonomy)을 제시한 바 있다. 두 요인은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취약성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자율성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독립성과 목표 지향적 행동이 위협받는 생활에 의해 우울해질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일 때 자녀는 역기능적 신념을 형성하기 쉽고, 역기능적 신념은 불안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자율성 저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역기능적 신념을 가질 시 청소년 불안으로 발전되기 쉽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

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잉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불안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각각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지나치게 경직되고 융통성 없으며, 극단적인 역기능적 신념은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신념이며, 인지처리 과정의 수준과 깊이에 있어서 심층적인 수준의 사고 내용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발생시키는 보다 근원적이고 기저수준에 있는 인지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의존적인(state-dependent)인지로 역기능적 신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층적인 사고를 반영하며, 심리적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인지적 안정성과 인지수준, 인지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모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인 과잉애정과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는 역기능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모두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문화별 사회적 행동특성의 관점에 따르면, 안정된 소집단에서 정서적이고 표현적인 구성원이 권위적 행동을 할 때 과업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구성원의 권위적 행동보다 이해되어지기 어렵다. 한국에서 아버지는 문화적으로 가장의 권위와 도구적 리더십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정서적이고 치유자적 역할을 하면서,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들은 어머니의 통제를 공격이나 적대적으로 느끼거나 거부의 표현으로 인지하기 쉽다(Rohner & Pettengil, 1985). 즉,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의 경우 청소년에게 어머니의 권위로 지각되어 부정적으로 인지된 반면, 과잉애정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역할로 인지되어 청소년 불안에 직·간접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교, 고찰해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없지만, 부모의 가혹하며, 체벌을 가하는 비밀관적인 역기능적 훈육태도가 파국화, 선택적 추상, 과잉일반화, 그리고 개인화로 구성된 인지적 왜곡과 걱정에 관한 역기능적 상위인지신념의 매개를 통해 상태불안을 유발한다는 연구(Gallagher & Cartwright-Hatton, 2008)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혹하며, 체벌적이고 비밀관적인 부모훈육태도를 역기능적인 양육형태로 보고 있으며, 불안과 관련된 인지를 인지 왜곡, 상위인지신념, 사고통제전략으로 나누어 상태불안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역기능적 훈육태도와 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인

지적 왜곡과 상위인지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국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양육태도가 불안을 야기하고 그 사이에 부정적 인지가 매개 한다는 점이 본 연구와 공통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가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정적 인지과정이 매개하여 불안에 영향을 주므로 인지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역기능적 신념을 완화하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줄이는 것이 청소년의 불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가 보편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양육태도의 일부분으로만 연구되어진 과보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소년 불안의 관계뿐 아니라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한국적 과보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청소년의 불안 치료에도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선정이 서울 소재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표집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하위요인인 과잉애정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가 서구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 상황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비교문화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부정적 인지, 불안의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외에 행동관찰이나 임상 면접과 같은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점적으로 측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의 과보호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 청소년 불안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Bögels & van Melick, 2004; Brakel, Muris, Bögels, & Thomassen, 2006)와 아동, 청소년 불안에서 어머니와는 다른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Bögels & van Melick, 2004)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정, 하은혜 (2007).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 연구, 18(3), 59-78.
- 박한아 (2006).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의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변영주 (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주경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 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염숙경, 이영미 (1999). 내면화 증상아동의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놀이치료연구 제 2권, 1-12.
- 이정윤, 김유경 (2006). 청소년의 내면화-외면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 청소년 상담연구, 14(1), 39-48.
- 이진용 (198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평가 III: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8(1), 141-162.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집단인지행동치료 효과의 예비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3(2), 263-279.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애현 (2002).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인천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865-880.
- Adler, A. (1958).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New York: Capricor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1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265-284. New York: Raven press.
-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 5-37.
- Benedek, T. (1970). Motherhood and nurturing. In E. J. Anthony & T. Benedek (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 Bögels, S. M., & van Melick,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port, parent self-report, and partner report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anxiety in children and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 Differences*, 37(8), 1583-1596.
- Brakel, A. M., Muris, P., Bogels, S. M., & Thomassen, C. (2006). A Multifactorial Model for the Etiology of Anxiety in Non-Clinical Adolescents: Main and Interactiv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Attachment and Parental Rear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5), 569-579.
- Eric, J. M., & David, A. W. (2001). 아동이상심리학 [Abnormal Child Psychology]. (조현춘, 송영혜, 조현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9에 출판)
- Gallagher, B., & Cartwright-Hatton,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factors and trait anxiety: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rrors and metacogni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722-733.
- Glass, C. R., & Furlong, M. (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65-384.
- Ingram, R. E., Overbey, T., & Fortier, M.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dysfunctional automatic thinking and parental bonding: specificity of maternal ca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401-412.
- Kim, U. C.,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 perspective. In P. M. Gren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athews, A., & Mackintosh, B. (2000). Induced emotional interpretation bias an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602-615.
- Muris, P., Meesters, C., Merckelbach, H., & Hulslenbeck, P.(2000). Worry in children is related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attachmen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 487 - 497.
- Nelsen, J., & Erwin. C.(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Prima Publishing.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Rapee, R. M., & Melville, L. F. (1997). Retrospective recall of family factor o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5, 7-11.
- Reynold,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 271-280.
- Rohner, R. P., & Pettengi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hner, R. P., & Rohner, E. C. (1978). Unpublished research data.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 1091-1109.
- Sobel, M. E. (1982). Asymp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Vasey, M. W., & Dadds, M. R. (2001).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Oxford: University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0. 02.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3. 24  
게 재 결 정 일 : 2010. 05. 15

##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Cogni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nxiety.**

**Min-Jin Shin**

**Eun Hye H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s of negative cognitions on the links between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nxiety. Five hundreds and eighty students of middle schools at Seoul were recruited.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ysfunctional beliefs mediated partially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nxiety and completely the link between obstruction of autonomy and adolescents anxiety. Second, negative automatic thought mediated partially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nxiety. Finally,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adolescents' anxiety was mediated by the level of negative cognition. However, dysfunctional beliefs and negative automatic thought did not mediate link between excessive affection and adolescents' anxiety.

*Key words* : *overprotection, dysfunctional belief,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xiety*